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주일설교를 매주 Podcast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스마트폰에 설치해 드립니다.
- 교육부 애플피킹: 9월30일(주) 주일예배 후
 - Youth Group and Sunday School will be going apple picking at Wilkens Farm.
Nursery School children may attend if accompanied by their parent.
Please join us after Sunday Service for a day of picking apples eating doughnuts and drinking cider!
 - 장소: Wilkens Farm, 1335 White Hill Rd Yorktown Heights, NY 10598
- 이번 목요일(9월20일)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분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분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분당
- 구역예배: 구역별

9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이영순 권사 (시 1)

이번 주 친교: 김민아 집사, 황혜영 집사

다음 주 친교: 김경화 집사, 하영미 집사

제18권 36호

2018년 9월 16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능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살전 (1 Th.) 5:1-11;**
살후 (2 Th.) 2:1-12----- 인도자
 설교(Sermon) -----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 1장 (통1장) -----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149장 (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 19 ----- 윤정호 집사
 찬양(Choir)-----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살전 (1 Th.) 5:1-11;**
살후 (2 Th.) 2:1-12-----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 ----- 인도자
 설교(Sermon) -----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406장 (통464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살전 1:10; 2:19-20; 3:11-13; 4:13-18; 5:23-24)

오늘 저녁부터 유대인의 달력으로 새 해가 시작하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새 해를 시작하는 나팔이기도 하지만 모든 민족을 불러모으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나팔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쉬고 새 하늘 새 땅의 시작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흘린 모든 눈물과 모든 수고와 열매를 받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 장을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림”이란 말이 당시 일반적으로 쓰였던 맥락은 로마의 황제가 제국의 변방의 도시들을 방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변방 도시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던 로마 시민들에게는 황제의 방문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가 확립되는 것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주께서 원래 주인이었던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지금 육신을 입고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지금 누구 백성으로 사느냐가 대단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은 개인의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시작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는 우리 당대에 응답을 보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제일 먼저 주님을 뵈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망이 끝장나는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는 일의 완성, 내 눈 앞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나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들의 새해 인사는 “행복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하게 기록되는 한 해”였습니다. 신년절에서 속죄일에 이르는 열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엄숙한 기간으로 지킵니다.

바울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한 점 흠 없이 서기를 원한다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무서운 심판의 소리로 듣지 않도록,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팔 소리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불러지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흠없이 순종하셨으나,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매어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갠 자와 자는 자가,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날이 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날 때가 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처럼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됩시다.